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1, 중국법률에는 종래로 《파룬궁은 x 교이다.》라고 명철한 정의를 내린적이 없다. 강택민과 《인민일보》에서 말한 것은 법률의거로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누가 정교(正教)이고 누가 사교(邪教)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국제법률과 중국헌법은 사람마다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은 신앙자유범주에 속함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다. 헌법과 충돌되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무효이다.

3, 중공이 파룬궁학원에게 들썩운 죄명은 《법률실시파괴죄》이다. 그런데 파룬궁학원들이 과연 무슨 법률실시를 파괴했는가? 형법의 어느 조례에 부합되는가? 중공은 변명 못하고 있다.

4, 법률은 행위를 겨냥할뿐 사상을 겨냥할 수 없다. 2001 년전후, 중국 매체는 파룬궁을 타격하

기 의해 일본과 프랑스에서 어떻게 《립법을 통해 사고를 타격했는가》에 대해 떠들어댔는데 이것은 착오적이다. 법률이 겨냥한 것은 이러한 교파(教派)의 개인적 폭력행위이고 그들의 신앙이 아니다. 파룬궁학원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완전히 평화적이고 이성적이었으며 어떠한 폭력경향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런 상해도 없었다.

지금 점점 많아지는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일떠나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있으며 파룬궁학원을 박해한 원흉 강택민은 집단학살죄, 폭형죄, 반인류죄로 이미 18 개 국가와 지역에서 기소 당하였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선량하고 누가 악독한가? 살펴보면 한눈에 환히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신년시위행진



2009 년 1 월 3 일 오후, 오스트레일리아 파룬궁학원 근 1 천여명이 헬



번에서 대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제일 앞장에선 천국악단은 우렁찬 음악을 연주하며 관중들에게 새해의 복음을 전했다.(윗 사진) 파룬궁학원들의 손에 든 아름답고 깨끗한 꽃다발과 박해로 사망된 파룬궁학원들의 유상은 중공의 참혹한 박해를 폭로했으며(중간 사진) 《천멸중공》(天滅中共)、《천우중화》(天佑中華)、《< 9 평공산당>을 4 년동안 널리 전했는데 당신은 읽어보았습니까?》라고 쓴 프렌카드는 사람들에게 속히 진상을 료해하고 “3 퇴”(퇴당, 퇴단, 퇴대)하라고 일깨워주었다.(아래)



홍콩신년시위행진

홍콩퇴당봉사중심등 단체에서 2009 년 1 월 1 일, 4 천 8 백만 용사들이 중공에서의 퇴당, 퇴단, 퇴대함을 성원하는 대시위행진을 거행했다.



각계인사들은 일떠나 중공사당을 철저히 해체하고 중국의 각민족 인민들의 고난을 결속 지으며 중화전통도덕 문화를 부흥시키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새기원을 맞이 하자고 호소했다.



캐나다에서 환영을 받은 신운예술단

2009년 1월 4일 오후, 미국뉴욕예술단은 캐나다오타와국가예술중심에서 공연하여 8천여명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속에서 막을 내렸다.



안성위원 리씨(왼쪽 사진)는 공연을 보면서 진상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표면상에서 본다면 매개 관중들은 아름다운 공연과 배우들의 공연에 대해 동일시하고 깊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타와대학교수이며 예술가인 온나-맥컨나 녀사는(오른쪽 사진) 말했다. 《난 선량한 중국사람들이 받은 상해(伤害)에 대해 가슴 아프게 느끼며 어느날 중국사람들이 신앙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난 다신 나쁜짓을 하지 않겠다.》

2008년 12월, 동북 모 향진 파출소에서 상급의 지시에 따라 본 향진 파룬궁학원들을 조사하고 등기했다. 조사결과 해방전쟁의 <공신>인 <로해방>의 가족과 그 자손들이 파룬궁을 수련한 인수는 1999년에는 2명인데로부터 10명으로 발전되었고 전 향진 파룬궁학원총수는 1999년에 30명인데로부터 300명으로 발전되었다. 이 등기표를 보고난 진당위서기는 《파룬궁학원들은 10년동안 10배로 증가되고 <로해방>의 가족과 후대들로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보아하니 공산당은 오라지 않아 끝장날거다. 난 다신 나쁜짓을 하지 않겠다. 래일부터 난 당서기를 그만 두고 파룬궁을 수련하겠다.》 하며 속다짐했다.



연변 박해 소식

■ 도문시 곡수진 파룬궁학원 류숙운(刘淑云)、황복순(黄福顺)은 2008년 12월 29일에 장춘시 흑취자로개소로 압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도문시 파룬궁학원 김룡철(金龙哲)은 지금 도문시 홍광파출소에 갇혀 악경들에게 매를 맞아 온몸이 시퍼렇게 이물었다.

■ 안도 파룬궁학원 필세우(毕世友)、장홍봉(张宏峰)、우수매(于树梅)는 지금 안도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연길시 파룬궁학원 김 XX는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경에 철남가도순라원에게 납치되어 지금 연길시구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믿음과 복

하북성 당산 모 현에 살고있는 한 부녀는 별안간 귀가 멀어 아무 소리도 들을수 없었다. 이름난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친척이 그에게 파룬궁 호신부를 주면서 《<파룬궁은 좋다>고 진심으로 외워보시오. 그러면 귀가 열릴거요.》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그 파룬궁 학원의 당부를 명심하고 매일 《파룬궁은 좋다.》고 정성껏 외웠다. 며칠후 과연 기적이 나타났다. 멍하던 그의 귀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효과를 보았습니다. <파룬궁은 좋다.>고 진정으로 외웠더니 멀었던 내 귀가 열렸어요. 나에게 복을 주신 리홍지 선생님께 천만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산불

2008년 초, 중국 남방 모 지역에 한차례 특대 산불이 일어났다. 사나운 산불은 온종일 1만여무 삼림을 태워버렸다. 유독 한 파룬궁학원과 그의 큰 시동생의 삼림만은 타지 않았다. 기승을 부리며 덮쳐들던 산불이 신기하게도 이 두 집 삼림앞에 와서 문득 멈춰섰다가 에돌아갔던 것이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현성에서 사업하는 작은 시동생이 다루는 삼림은 몽땅 타버렸지만 큰시동생이 그에게서 30%를 넘겨받아 대신 가꾸는 삼림은 전혀 타지 않았다.



큰시동생은 파룬궁학원인 아주머니에게서 진상이야기를 들은후 온식구들을 설복하여 함께 《3퇴》(퇴당, 퇴단, 퇴대) 했지만 작은 시동생은 아주머니 진상이야기를 흘려 들으며 《3퇴》를 하지 않았다.

이 마을 촌민들은 저마다 《파룬따파는 참 신기하다. 신은 일체를 보호한다.》고 찬탄하면서 너도나도 《3퇴》를 하고 있다.